

운명의 손

The Hand of Fate / 운명의 손

조각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은...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浪漫의 鄉土』李

그의 獨特의 天才의 表現
가 1930년대 韓國의 文壇
에 吹어 들어온 것이다

『浪漫의 鄉土』는 李
의 文學의 特色을 示한
작품이다



운명의 손 / 한글



『作家的 運命』金 聖



『作家的 運命』는 金
의 文學의 特色을 示한
작품이다

『作家的 運命』는 金
의 文學의 特色을 示한
작품이다

『作家的 運命』는 金
의 文學의 特色을 示한
작품이다



영화 정보

제 작 : 한형모 프로덕션

각 본 : 김성민

감 독 : 한형모

촬 영 : 이성휘

조 명 : 이한찬

편 집 : 한형모

음 악 : 박시춘

미 술 : 이봉선

현 상 : 대한현상소

출 연 : 이 향, 윤인자, 주선태



개 봉 : 1954. 12. 14 수도극장

[영화소개]

줄거리

술집에서 빠걸로 일하며, 북한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마가렛(정애, 윤인자 분)은 우연히 도둑으로 몰린 고학생 신영철(이항 분)을 구해준다.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낀 마가렛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준 후 돌려보낸다. 어느 날 부두에서 하역노동자로 일하는 영철과 만난 마가렛은 그에게 옷과 구두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고 은근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이후 그들은 연인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마가렛은 간첩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철과의 사랑 사이에서 번민한다.

밤을 같이 보내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한 어느 밤, 마가렛은 신영철의 신분증을 통해 그가 방첩대 대위임을 확인한 후 큰 충격을 받고 영철을 의식적으로 피한다. 그리고 영철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마가렛 때문에 괴로워한다. 어느 날 영철은 간첩이 어느 여인과 접선할 것이라는 첩보를 받고 간첩 하나를 미행하다 총격전까지 벌이게 된다. 접선 장소에서 기다리던 마가렛은 자신들을 소탕하러 온 영철을 발견하고 몸을 숨긴 채 피한다.

간첩단 두목 박(주선태 분)은 마가렛을 이용하여 영철을 제거하기로 하고, 마가렛은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유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유인과정에서 마가렛의 정체를 알게 된 영철은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한다. 그러나 마가렛은 차마 영철을 쏘지 못하고, 그를 위해 박의 총을 대신 맞으며, 영철은 박과의 결투 끝에 그를 죽인다. 총을 맞아 부상을 당한 마가렛은 영철의 손에 죽기를 원하고,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쏜다.

작품해설

“한국영화사상 획기적 아심작”

(동아일보, 1954.12.19)

이 영화는 한형모가 1949년 <성벽을 뚫고>로 감독으로 데뷔한 이후 두 번째로 연출한 영화이다. 사랑과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간첩이라는 소재는 한국영화사에서 제법 다루어져 온 소재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이후 영화들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념과 사랑사이의 분리된 여성의 정체성을 이만큼 뚜렷하게 제시한 영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당대 한국영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 할 수 있는 한형모가 직접 편집까지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간첩이라는 소재를 한국영화 최초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그 소재를 다루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과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간첩 자신의 실존적 고뇌(그 깊이는 논외로 하더라도)를 비교적 순도 높게 다루고 있는데 있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와 스파이 반공영화, 활극물이 짬뽕된 한국영화사 최초의 퓨전 장르영화로 완성된다. 이 영화의 이러한 독특함은 여주인공 마가렛(정애)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 집약된다. 영화에서 마가렛(정애)의 이미지는 청순한 동시에 요염하며, 또한 퇴폐적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두 개이며 각 이름이 두 개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우리는 여기서 <쉬리>의 김윤진이 분한 이방희와 이명현이라는 두 이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가렛으로서의 여주인공은 처음 만나는 남성을 자신의 방으로 들이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구애를 하는 대담함을 보여주며, 그녀가 사는 당시로서는 화려한 아파트의 공간, 그녀의 옷차림 등은 이후 현대 멜로드라마의 여성 캐릭터(소위 아프레 걸)의 특징을 선취하고 있다. 반면 정애로서의 여주인공은 전통 신파극의 비련과 순종의 여인상을 담지하고 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마가렛은 정애로 서서히 변화하며, 결국 그녀는 정애로서

신영철을 위해 대신 총을 맞고 죽음으로써 헌신과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다. 어느 면에서 볼 때, 화려하고, 세련되며, 요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순하고 고결한 성품을 함께 갖춘 여성상은 아마도 당대 남성들이 가지는 여성에 대한 판타지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 영화가 가지는 또 다른 독특함은 영화 내부의 장르적 불균질성이 두 남녀 주인공에 대한 불균등한 정보배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 신영철은 마가렛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영화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알게 된다. 관객과 여주인공은 마가렛이 간첩이라는 정보를 아는 반면, 신영철이 비밀을 모른다는 사실은 영화의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주요한 동인임과 동시에 영화의 장르적 모호함을 가져온다. 영철은 마가렛의 괴로움이 단순히 신분의 차이와 더럽혀진 몸 때문인 것으로 착각한다. 이 때 영철을 축으로 하는 영화는 전통적인 신파 멜로드라마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띠며, 이에 따라 마가렛에 대한 영철의 반응과 마가렛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의 표정과 태도는 전형적인 신파 멜로드라마의 그것을 보여준다. 반면 마가렛을 축으로 하는 내러티브는 반공 스파이물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서사전략은 한국영화에서 대단히 신선하고 선구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는 듯하다. 당시의 영화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두고 평했던 '신형식 영화'라는 표현은 그들이 그것을 의식했건 못했건 간에 이러한 서사와 장르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을 떠나 이 영화가 1950년대 한국의 영화산업이 막 시작하는 시기의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1954년 영화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눈에 연기가 어색하고, 내러티브의 진행에서 다소간 흠이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 장르영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대중영화임은 분명하다.

1954년 초여름에 촬영에 들어가 1954년 말과 1955년 초 동안 흥행에 들어간 이 영화는 같은 시기에 개봉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1955)에 밀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국최초의 키스 신으로 유명해졌던 영화이기도 하다.

[감독소개] 50년대 한국대중영화의 최전선, 한형모 감독(1917~1999)

한형모의 영화와 인생

한형모 감독은 1917년 4월 29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공무원이었던 한기제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는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다. 백마보통학교와 고등과, 중국 신경미술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만주 미쓰고시 백화점에서 원도우 간판을 그리다가 귀국, 신태양 극단에 들어가 2년 동안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 선전광고, 프로그램 도안을 담당하였다. 당시 쌀 한 말에 9원 정도할 때 50원 내지 1백 원을 수고료로 받았다고 한다.

그의 영화인생은 1941년 최인규의 <집없는 천사>에 미술담당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최인규의 추천으로 일본 동보 영화사에서 촬영을 공부하고, 1943년에는 일본에서 실시한 촬영·감독·연기자 기능시험의 촬영분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기능 시험 합격의 대가로 받은 필름을 가지고 귀국한 한형모는 <집없는 천사> 이후 3년 9개월 동안 일제 어용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버티던 최인규를 설득하여 친일영화 <태양의 아이들>(44)을 연출시키고, 자신은 촬영감독으로 데뷔하였고, 1945년에는 다시 최인규 연출, 한형모 촬영으로 <사랑의 맹세>를 만들었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1946년 <자유만세>, <여명>, <죄없는 죄인>, <마음의 고향>(1949) 등 영화의 촬영감독으로 활약하였는데, 당대 최고의 촬영감독 중의 하나로 꼽혔다. 이후 한형모는 1949년 <성벽을 뚫고>의 연출과 촬영을 담당함으로써 감독으로 데뷔한다. <성벽을 뚫고>는 여수·순천 사건을 무대로 한 처남과 매부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그린 영화로, 한국 반공영화의 효시로 거론된다. 6·25 발발 이후 한형모는 국방부 정훈국 촬영대로 참전하여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정의의 진격 1, 2부>(1951, 1953)를 촬영·편집하였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6·25 동란에 대한 소중한 기록들을 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영화 관련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전쟁 후 그가 연출한 첫 작품이 이번 DVD로 소개되는 <운명의 손>이다. 빠걸(양공주) 여간첩과 방첩대 장교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흥행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후 1960년대 이후 여간첩 시리즈 영화들의 일종의 모델로 기능하였다.

1956년 연출한 <자유부인>의 빅 히트와 이 영화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센세이션은 한형모를 최고의 흥행감독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같은 해

에 <청춘쌍곡선>을 연출하였는데 이 영화는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두 쌍의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였다. 이 작품은 우여곡절 끝에 아세아영화제 출품작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1957년에 연출한 박계주 원작의 <순애보>는 한 남성의 숭고한 자기희생 정신을 그린 영화로 그 해 문교부에서 선정한 우수영화에 뽑히기도 하였다. 같은 해 그는 김내성의 “마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마인>을 연출하였는데,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스릴러 영화로 인정받는다.

이후 그는 1958년 <나 혼자만아>, <사랑하는 까닭에>, 1959년 <가난한 애인들>, <남성 대 여성>, <여사장> 등을 연출하여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질투>(1960), <언니는 말괄량이>(1961), <돼지꿈>(1961), <왕자호동>(1962), <천국과 지옥>(1963), <위커힐에서 만납시다>(1966), <엘레지의 여왕>(1967)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7편을 연출하였으나 흥행과 비평에서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엘레지의 여왕>을 끝으로 영화현장을 떠나게 된다.

한형모의 영화세계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을 전후한 한형모의 영화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술과 촬영이다. 그는 촬영감독 출신답게 카메라워크에서 당대 어느 감독도 따라올 수 없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미술학교 출신의 이력을 반영하듯 영화의 미장센과 세트들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다. 그의 영화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중·후반은 한국영화산업에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기증받은 기자재들이 도입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세트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영화 전반에서 미장센과 특히 카메라 워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 시기 영화들에서는 다양한 크레인, 트래킹 쇼트들이 어느 면에서는 무분별할 정도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형모 감독의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가 이러한 형식적 실험을 감행하면서도 전체적인 구도와 편집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순애보>와 같이 예술영화와 장르영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장르 영화들은 갈등의 발생과 해결 구도가 명확하며 군더더기가 없다. 이는 그가 서사의 경제성이라는 할리우드식 장르영화의 서사적 특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50년대 후반 심지어 60년대 초까지 많은 한국의 장르영화들에서 주요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도 결말을 짓지 못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연장시키는 경향이 상존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얼마나 섬세 좋은 장르감독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한형모에 이르러(혹은 한형모로부터) 한국영화에서 촬영과 미장센, 편집, 내러티브에 이르는 초기 장르영화의 형식이 정착화되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을 아우르는 한형모 영화의 특징은 현대적(혹은 도회적) 감수성이다. 그가 다양한 장르영화들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화의 본령이 로맨틱 코미디를 포함한 현대 멜로드라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대 멜로드라마들은 대체로 서울이라는 공간과 서울 속의 청춘남녀(때로 중년남녀)의 풍속도를 그리며, 그 속에서 크든 작든 언제나 사랑과 가족, 일상에 대한 변화된 감수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가 비교적 보수적인 의식을 소유하였고, 이러한 보수성이 그의 멜로드라마에 깊이 침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영화 속에는 그의 의식을 뛰어넘는 풍부한 도시적 삶의 묘사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형모의 영화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보수성이다. 북한 출신 월남민이었다는 사실, 보수적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는 사실, 식민시기 일본에서 영화를 배웠고 비록 촬영감독이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어용영화로 데뷔를 했다는 사실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의 이력은 한형모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성을 강하게 띄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성벽을 뚫고>와 <정의의 진격>, <운명의 손> 등의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노골적인 반공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필모그래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부인>, <청춘쌍곡선>, <여사장> 등의 현대 멜로드라마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물론 표면적인 가부장제의 이면에는 오히려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는 시각이 표현된다는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62년도 그의 사극 <왕자 호동>에서는 민족주의 시각이 강렬하게 그려진다. 친일-반공-가부장제 옹호-민족주의와 같은 착종되고 모순된 의식들의 부조화가 오늘날까지도 한국 우익들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형모는 통상적인 우익들의 의식을 반영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류 이데올로기 편향은 그의 개인사적 이력뿐 아니라 대중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그의 대중적 관점에서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상 그는 자신의 전성기인 1950년대 후반에조차 평단으로부터 영화의 질에 걸맞는 평가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영화는 지나치게 밝고 대중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한국 영화예술의 전범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비교적 모양새가 괜찮은 영화를 만드는 상업영화 감독으로 남았다. 물론 그가 웰 메이드 상업영화 감독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한국영화사를 통 털어 한국 대중영화를 발명해 낸 가장 중요한 창시자 중의 한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형모 필모그래피

연출작

1. 성벽을 뚫고(49)
2. 운명의 손(54)
3. 청춘쌍곡선(56)
4. 자유부인(56)
5. 마인(57)
6. 순애보(57)
7. 나 혼자만이(58)
8. 사랑하는 까닭에(58)
9. 남성 대 여성(59)
10. 가난한 애인들(59)
11. 여사장(59)
12. 질투(60)
13. 돼지꿈(61)
14. 언니는 말괄량이(61)
15. 왕자 호동(62)
16. 천국과 지옥(63)
1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66)
18. 엘레지의 여왕(67)

촬영작

1. 태양의 아이들(44)
2. 사랑의 맹서(45)
3. 자유만세(46)
4. 죄없는 죄인(48)
5. 여명(48)
6. 마음의 고향(49)
7. 여군(54)
8. 불사조의 언덕(55)
9. 단종애사(56)
10. 사랑하는 까닭에(58)
11. 여사장(59)
12. 질투(60)
13. 왕자호동(62)
14. 천국과 지옥(63)

[인물 소개]

한형모 / 감독, 촬영기사

- 1917년 4월 29일 평안북도 의주 생
- <집없는 천사>(1941, 최인규 감독) 미술담당으로 영화계 데뷔
- <태양의 아이들>(1943, 최인규 감독)로 촬영감독 데뷔
- <성벽을 뚫고>(1949) 이후 18편의 영화 연출
- 제7회 서울시 문화상(57),
제6회 아시아영화제 향토문화상(58, 사랑하는 까닭에),
제1회 대중상 편집상(62, 언니는 말괄량이) 등 수상
- 1999년 사망



윤인자 / 배우

- 1923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 본명 윤인순
- 19살 때 연기와 인연을 맺고, 유치진의 연극 <소>의 만주 공연 중 해방 맞음
- 해방 직후 해주에서 월남한 이후 악극단과 신탁에서 연기
- 신상옥의 <코리아>(54)로 데뷔
- <운명의 손>(54), <전후파-아프레겔>(57), <그 여자의 일생>(57), <빨간 마후라>(64) 등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
- 수상경력 : 대중상 여우조연상(<빨간 마후라>) 등



주선대 / 배우

- 1921년 함경북도 길주 생
- 자유극장(1945), 신청년(1947), 신탁(1950) 등의 극단 활동
- 1949년 장황연 감독의 <청춘행로>로 데뷔
- <자유부인>(1956), <말띠신부>(1966, 김기덕 감독), <죽보>(1978, 임권택 감독) 등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
- 1970년대부터는 TV 드라마를 통해 활동
- 극단 신탁 대표(1971~1978)
- 1989년 8월 21일 사망



[참고문헌]

1. 조희문 / 「'선량한 악당'으로 사랑받은 만능배우-주선태」
(『한국영상자료원 2002년 한국영화 명배우 회고전 카탈로그북』)
2. 변재란 / 「이색적이며 매력적인 영화배우 윤인자」
(『한국영상자료원 2000년 한국영화 명배우 회고전 카탈로그북』)
3. 주진숙 / 장미희, 변재란 외, 『여성영화인사전』, 도서출판 소도, 2001
4. 조준형 / 「반공영화의 진화와 그 조건」
(차순하 외, 『근대의 풍경: 소품으로 본 한국영화사』, 도서출판 소도, 2001)
5. 이순진 / 「1950년대 공산주의자의 재현과 냉전의식:
〈정의의 진격〉, 〈피아골〉, 〈운명의 손〉을 중심으로」
(김소연 외,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도서출판 소도, 2003)
6. 김수남 / 『한국영화 감독론2』, 지식산업사, 2003
7. 김종원 외 / 한국영화 감독사전, 국학자료원, 2004





운명의 손

The Hand of Fate / 운명의 손

조각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은...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浪漫에의 鄉愁」李 善 淵

나의個性과 本質의 表現이라
서 이 作品과 表現은 必然
이다.

浪漫의 空氣를 呼吸하고 있는
것이다. 故에 이 作品은 必然
이다.



The hand of Fate / English



「作家의 辯」金 聖 雲



金聖雲의
自傳



Movie information

Production: Han Hyung-mo Production
 Screenplay: Kim Sung-min
 Director: Han Hyung-mo
 Cinematography: Lee Sung-hwee
 Lighting: Lee Han-chan
 Editing: Han Hyung-mo
 Music: Park Shi-chun
 Art: Lee Bong-sun
 Printing: Daehan Printing Co. Lab.
 Starring: Lee Hyang, Yun In-ja, Joo Sun-tae



Released: December 14, 1954
 at the Sodo Theater

[About the movie]

Synopsis

Margaret (Jung-ae, played by Yun In-ja), a North Korean spy working as a bar girl at a saloon, happens to save a working student, Shin Young-chul (played by Lee Hyang), who is being pursued as a thief. Margaret does not know why, but she begins to take an interest in Young-chul and invites him to her house to tend to his wounds and give him something to eat before sending him on his way. One day, Margaret meets Young-chul on the dock while he is working as a cargo laborer. She shows him kindness by buying him clothes and shoes, and then quietly confesses her heart to him. Afterwards, the two become lovers and have a wonderful time together. However, even as all this is happening, Margaret feels torn between her identity as a spy and her love for Young-chul.

One night, the two spend the night together and confirm their love. Margaret receives a huge shock when she sees Young-chul's ID card and learns that he is a captain of the counterintelligence squad, and subconsciously begins to avoid him. Meanwhile Young-chul is in despair because Margaret refuses to meet him. One day, Young-chul receives information that a spy is going to make contact with a woman. He follows one of the spies and even becomes involved in a shootout. Waiting at the contact spot, Margaret discovers that Young-chul has come to wipe them out, and she hides herself and manages to avoid Young-chul.

Park (played by Joo Sun-tae), the head of the spy ring, decides to use Margaret to get rid of Young-chul. Margaret falls into despair, but takes the mission in order to lure him. Young-chul comes to know Margaret's identity while she tries to lure him in and feels betrayed, but he makes up his mind to die for the woman he loves. However, Margaret cannot bring herself to shoot Young-chul. She takes the bullet for him shot by Park, and Young-chul kills Park at the end of their shoot-out. Margaret, injured with a gunshot wound, wishes to die by Young-chul's hand, and Young-chul sheds tears as he shoots her.

Movie commentary

“A epoch-marking, ambitious work in the history of Korean films.”

(Donga Daily News; December 19, 1954)

This movie is the second film directed by Han Hyung-mo after he debuted with <Breaking the Wall> in 1949. The subject matter of a female spy torn between love and ideology is a topic that has been dealt with often in Korean film history. However, this film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at it provided a prototype for the movies that followed. In addition, before this film, there had been no movie that so clearly depicted a woman divided between love and ideology. Also, Han Hyung-mo, who in those days could be considered the greatest technician in Korean film history, supervised the editing himself, so we can see the technical standards of Korean films of that era through this movie.

The interesting aspect of this film is that not only was it the first Korean film to deal with the subject matter of a female spy, but it was also, as previously mentioned, able to deal with the existential suffering (its depth is irrelevant) of a female spy in conflict between love and ideology, in an honest form. Therefore, this is the first complete fusion genre movie in Korean film history, combining a melodrama, a spy Communist film, and an action-packed movie into one. This uniqueness of the film was concentrated in the main female character Margaret (Jung-ae). The image of the character Margaret (Jung-ae) is innocent while being coquettish, as well as corrupt. On that note, the fact that she has two names in the movie, with each name having a different character, is suggestive. (We cannot help but think of Kim Yun-jin's character in <Shiri> with two names, Lee Bang-hee and Lee Myung-hyun). The female star Margaret allows a man she meets for the first time into her home, and in a fearless manner, she aggressively courts him. The apartment where she lived - fancy for the time period - and the way she dressed also shows characteristics of the heroine of a modern melodrama (the so-called apres girl). On the other hand, the female character of Jung-ae embodies the tragic love and submission of a feminine figure in a traditional new-school drama.

As the film progresses, Margaret slowly transforms into Jung-ae. Eventually, she takes the bullet intended for Shin Young-chul as Jung-ae and shows the peak of her love and commitment. In one sense, this gorgeous and sophisticated image of a siren that also embodied a pure and noble character seems to be a reflection of the fantasies that men had for women at that time.

Another unique characteristic of this film is its internal imbalance in terms of genre, that shows up in the imbalance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main male and female characters. The main male character Shin Young-chul finds out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the truth that Margaret is a spy. The audience and the main female character possess the information that Margaret is a spy, while Shin Young-chul is unaware of this fact. This is a significant drive that carries the film's narrative. At the same time, it imparts an ambiguity of genre to the movie. Young-chul mistakenly thinks that Margaret is suffering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ir social standing and her defiled body. On one hand, the film locates Young-chul as the center of a narrative feature in the mold of traditional new-school melodramas, and thus Young-chul's reaction to Margaret, his facial expressions and attitude in accepting her words represent that of typical new-school melodramas.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 that features Margaret at its center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ti-Communist spy genre. It is certain that this two-sided narrative strategy was an extremely fresh and pioneering endeavor for the Korean cinema. The expression 'new-form film' that film critics used in order to describe this film at that time, whether consciously or not, designated a new aspect of this movie regarding this narration and genre.

Aside from all of this, this film is invaluable in being one precious resource which shows the face of cinema during the 1950s when the Korean film industry was just beginning (It is the only film that the Korean Film Archive has in storage from 1954). Although our eyes today would no doubt think that the acting is awkward and that there are flaws in the progress of the narrative, it is the most interesting popular film that shows the early characteristics of Korean genre films.

This film started filming in the early summer of 1954 and screened in late 1954 and early 1955. Due to the release of an unprecedented record-breaking film <Chunhyang Story> (1955) by director Lee Kyu-hwan, <The Hand of Fate> was never able to reap strong commercial success. This film also became famous for being the first film in Korea to feature a kiss scene.

[About the director] The spearhead of the 1950s Korean popular films,
director Han Hyung-mo (1917-1999)

Han Hyung-mo's movies and life

Director Han Hyung-mo was born as the youngest son of three boys and one girl of a city official Han Gi-jae on April 29, 1917 in Uiju of the North Pyeongan Province. His parents were devout Christians, and it is said that he grew up in a Christian environment. He graduated from Baekma Primary and High Schools, and also studied art at a technical school in China. Then, after drawing window boards at the Manchurian Mitsukoshi Department Store, he returned to his homeland. During two years with the Shin Taeyang theater troupe, he was responsible for stage equipment, advertising and program designs. In those days, a sack of rice cost 9 won, and he received 50 to 100 won as his pay.

His film career began in 1941 when he participated as the supervising art director for Choi In-kyu's <Homeless Angel>. Afterwards, he studied cinematography at the Dongbo Film Co. in Japan at the recommendation of Choi In-kyu. In 1943, he took part in the cinematography/directing/acting skill tests held in Japan and passed the cinematography test. After receiving film as his reward for passing the skill tests and returning home, Han Hyung-mo persuaded Choi In-kyu, who refused to make a Japanese government-controlled movie for 3 years and 9 months after <Homeless Angel>, to produce the pro-Japanese film <Children of the Sun> (1944). Han debuted as the cinematographer in that film, and in 1945, he filmed <Vow of Love>, which was another Choi In-kyu production.

Even after liberation, he was active as a cinematographer with films such as 1946's <Hurrah! For Freedom>, <The Dawn>, <An Innocent Criminal>, and <Hometown of the Heart> (1949), and he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best cinematographers of that era. Afterwards, Han Hyung-mo made his debut in 1949's <Breaking the Wall>, for which he took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credits. As a film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Yeosu/Suncheon incident, <Breaking the Wall> was a story that portrayed an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wo brothers-in-law that provoked much controversy as the first Korean anti-Communist film.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Han Hyung-mo entered into the war by joining the camera crew



that generated the news and documentary films made by th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the process, he filmed and edited <An Assault on Justice, Part 1 and 2> (1951, 1953) with fellow filmmakers. This documentary film serves as a precious record of the events of June 25 that started the war, and even today, it is used as the most valuable resource among Korean film-related materials.

The first project that he directed after the war was <The Hand of Fate>, which is being introduced on this DVD. The tragic love story portrayed in this film of the female spy/bar girl (Western prostitute) and the officer of a counterintelligence organization was not able to become a huge success at the box office, but it served as a sort of model for a series of female spy movies after the 1960s.

After scoring a major hit with the 1956 production <Madame Freedom> and the social sensation that it created, Han Hyung-mo was raised up to the level of a leading commercial director. That same year, he directed <Double Curve of Youth>, a romantic comedy that portrayed the love between two couples from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After various complications, this film was even selected to screen as an entry in the ASEA Asian Film Festival. In additio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also selected Han's 1957 production <The Pure Love>, based on Park Kye-ju's original work about a man's noble spirit of self-sacrifice, as the year's Best Film. That same year, he adapted Kim Nae-sung's "The Devil" into the film <The Devil>,

and that movie was recognized as the very first Korean thriller.

Subsequently, he introduced a series of critically acclaimed films, such as <I am Alone> and <Because I Love You> in 1958, and <Poor Lovers>, <Men vs. Women>, and <A Female Boss> in 1959. Entering the 1960s, he produced seven films of various genres, such as <Jealousy> (1960), <My Sister is a Hussy> (1961), <A Dream of Fortune> (1961), <Prince Hodong> (1962), <Heaven and Hell> (1963), <Let's Meet at Walkerhill> (1966), and <The Queen of Elegy> (1967). However, they were not greatly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or with critics, and after <The Queen of Elegy> he retired from cinema.

Han Hyung-mo's cinematic world

From the mid-1950s through the period before and after 1960, the most noteworthy characteristic in Han Hyung-mo's films was its art direction and cinematography. With his background as a cinematographer, he displayed outstanding skills in camerawork that no one during that era could follow. Also, as a reflection of his schooling and experience at an art school, the films' mise en scene and sets were modern and sensible. The mid to late 1950s, which can be called his cinematic prime, was an era in which studios were constructe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equipment donated from the United States was used. In addition, as filming on set became possible with the advent of studios, the Korean film community as a whole began to express heightened interest in mise en scene and particularly cinematography. As a result, movies from this period have a tendency to utilize a variety of diverse crane and tracking shots that are almost impossible to categorize. The noteworthy point in director Han Hyung-mo's films is that they dare to carry out these perfunctory experiments, but still maintain an overall sense of composition and assured editing.

In addition, with the exception of extreme instances such as <The Pure Love> that lose the distinction between artistic and genre film-making, the cause of conflicts and design of resolutions are clear and not superfluous. This is proof to the contrary that he understands the competitive economy of narrative characteristics in Hollywood genre films. In the late 1950s and even

into the early 60s, when considering that there was a tendency to unnecessarily extend the playing time because of many Korean genre films' inability to end the film after the main problems have been solved, we can see just how much of a skilled genre director he was. Therefor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because of Han Hyung-mo, the first Korean films established and began developing a model of cinematography, mise en scene, editing and narrative. Including all the items noted above,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Han Hyung-mo's films is his urban sensibility.

Despite the fact that he ranged over an extensive and diverse spectrum of genre films, it is without a doubt that his specialties were modern melodramas, including romantic comedies. Generally speaking, modern melodramas were set in a setting like Seoul and portrayed the lives of young males and females (and at times middle-aged men and women) in Seoul. And within that setting, it was inevitable to express changes in sensibilities regarding love, family and daily life, whether that change was big or small. As to be mentioned later, he possesses a relatively old-fashioned consciousness. Even though this old-school mindset is deeply embedded within his melodrama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n abundant depiction of urban life in his films that goes beyond his values.

Another characteristic that you cannot leave out in Han Hyung-mo's cinematic world is ideological conservatism.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a North Korean who had come south of the border, that he grew up in a conservative, Christian home, that he learned movies in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at even as a film-maker he debuted with a Japanese government-controlled movie, we can clearly see the influence of his personal experiences because Han Hyung-mo strongly shows this ideological conservatism in his films. The great majority of movies that make up his filmography are modern melodramas that portray patriarchal views (of course, it can also be said that from a superficial patriarchal point of view, that they instead affirm women's desires) such as <Madame Freedom>, <Double Curve of Youth>, and <A Female Executive>, not to mention <Breaking the Wall>, <An Assault of Justice>, and <The Hand of Fate>, which show outspoken anti-Communist notions. Also, although it's hard to generalize regarding the 1962 period piece <Prince Hodong>, it shows a strong

nationalist point of view. If you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discord of such entangling and inconsistent views like pro-Japanese notions, anti-Communism, the safeguarding of patriarchy, and nationalism still make up the general mindset of the Korean right-wing even today, you can say that Han Hyung-mo reflected the viewpoints of ordinary rightists.

These mainstream, ideological inclinations of his originate from not only his personal experience, but also from his ability to see movies from a popular point of view in order to reflect the preferences and values of the public. In actuality, it cannot be said that he received supportive reviews for the quality of his films from critics even from the late 1950s, which was the peak of his career. His films are excessively bright and appeal to the masses. Hence, it was quite set apart from the standards of Korean cinematic art, which maintain that movies should artistically sublimate society's pain. And therefore, he remained the industry film director that made movies that looked relatively good. Of cour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is a director of well-made commercial films. However,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h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oneers that invented Korean popular films within the entirety of Korean cinematic history, further review of his work should be aggressively carried out.

-Korea Film Archive, Film Research Team, Jo Jun-hyung

Han Hyung-mo's filmography

As a director

1. Breaking the Wall (1949)
2. The Hand of Fate (1954)
3. Double Curve of Youth (1956)
4. Madame Freedom (1956)
5. The Devil (1957)
6. Pure Love (1957)
7. I am Alone (1958)
8. Because I Love You (1958)
9. Men vs. Women (1959)
10. Poor Lovers (1959)
11. A Female Executive (1959)
12. A Jealousy (1960)
13. A Dream of Fortune (1960)
14. My Sister is a Hussy (1961)
15. Prince Hodong (1962)
16. Heaven and Hell (1963)
17. Let's Meet at Walkerhill (1966)
18. The Queen of Elegy (1967)

As a cinematographer

1. Children of the Sun (1944)
2. Vow of Love (1945)
3. Hurrah! For Freedom (1946)
4. An Innocent Criminal (1948)
5. The Dawn (1948)
6. A Hometown in Heart (1949)
7. A Woman Soldier (1954)
8. The Hill of Immortal Bird (1955)
9. A Sad Story of Danjong (1956)
10. Because I Love You (1958)
11. A Female Executive (1959)
12. Jealousy (1960)
13. Prince Hodong (1962)
14. Heaven and Hell (1963)

Cast & Crew

Han Hyung-mo / director, cinematographer

- Born on April 29, 1917 in Uiju, North Pyeongan province
- Debuted in the movie industry as supervising art director of <Homeless Angel> (1941, director Choi In-kyu)
- Debuted as cinematographer in <Children of the Sun> (1943, director Choi In-kyu)
- Directed 18 films after <Breaking the Wall> (1949)
- Awarded the 7th Seoul Cultural Award (1957), 6th Asian Film Festival Folk Culture Award (1958, Because I Love You), 1st Daejong Film Festival Editing Award (1962, My Sister is a Hussy), etc.
- Died in 1999



Yun In-ja / actress

- Born as Yun In-sun in 1923 in Sariwon, Hwanghae Province
- Began acting at age 19; Korea's liberation occurred while she was in a Manchurian performance of Yu Chi-jin's play <Cattle>
- Came south of the border from Haeju after liberation, and performed in an operetta and with the Shinhyub theater troupe
- Debuted with Shin Sang-ok's <Korea> (1954)
- Starred in about 100 films, such as <The Hand of Fate> (1954), <The Postwar Generation> (1957), <A Woman's Life> (1957), and <Red Muffler> (1964)
- Awards received: Grand Bell Film Festival Best Supporting Actress Award for <Red Muffler>, etc.



Joo Sun-tae / actor

- Born in 1921 in Gilju, North Hamkyung Province
- Acted in theater companies such as the Freedom Theater (1945), New Youth (1947), Shinhyup Theater (1950)
- Debuted in director Jang Hwang-yeon's <A Journey of Youth> in 1949
- Starred in about 100 films, such as <Madame Freedom> (1956), <Horse-year Bride> (1966, director Kim Ki-duck), <The Genealogy> (1978, director Im Kwon-taek), etc.
- Acted in television dramas beginning in 1970
- Representative of the Shinhyup Theater (1971~1978)
- Died on August 21, 1989



Bibliography

1.

Jo Hee-mun, "Joo Sun-tae: Renaissance actor loved for his 'virtuous villain' roles" (Korea Film Archive, 2002 Best Korean Film Actors Catalogue Book)

2.

Byun Jae-ran, "The unique and enchanting film actress, Yun In-ja" (Korea Film Archive, 2000 Best Korean Film Actors Catalogue Book)

3.

Joo Jin-suk, Jang Mee-hee, Byun Jae-ran, et al, "Women in the Movies Guide", Doseo Publishing, 2001

4.

Jo Jun-hyung, "The evolution and the terms of anti-Communist films" (Cha Sun-ha et al, "The landscape of modernism: Korean film history seen through props", Doseo Publishing, 2001)

5.

Lee Sun-jin, "The revival and cold war subconscious of 1950s Communists: <An Assault of Justice>, <Piagol>, <The Hand of Fate> at the center" (Kim So-yeon et al, "An era of charm and confusion, 1950s Korean films", Doseo Publishing, 2003)

6.

Kim Su-nam, "Korean film director essay", Knowledge Industry, Co., 2003

7.

Kim Jong-won et al, Korean Film Directors Guide, Kookhak Resource Center, 2004

